

『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』

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 원장 안철경입니다.

[보험연구원에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]

“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”

세미나에 참석해 주신

내외 귀빈 여러분께 **환영과 감사**의 말씀을 드립니다.

특히 오늘 세미나를 지원해 주시고

축사를 해주시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 발걸음을 해주신

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, **차수환** 금융감독원 부원장보
님께 감사드립니다.

또한 평소 반려동물보험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석해 주신

정지원 손보 협회장님과 **김주원** DB그룹 부회장님께도 감사의
말씀을 드립니다.

우리 삶에서 반려동물은 더 이상 ‘물건’이 아니라

‘가족의 구성원’으로 여기는 것이

우리의 일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.

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

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이

전체가구의 25.4%(602만 가구)로,
양육인구는 1,306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.

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
반려동물과 관련 소비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산업이
새로운 미개척지로, 미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

특히 반려동물의 웰니스(wellness, 건강)에 대한 관심과 소
비자 니즈는 더욱 커지고 다양해졌습니다.

이에 발맞춰 자연히
동물병원의 진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진료비를 보장하는
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약 1%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.

아직은 시장형성 초기단계라 **보험제도 및 인프라**의 준비
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.

반려동물 산업이 확산되면서
동물병원 의료비(치료비), 산책 중 발생하는 상해위험,
배상책임 등 관련된 다양한 위험 등은
보험산업이 담당해야 할 역할입니다.

이는 보험 본연의 기능이고,

보험산업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.

오늘 세미나에서는
그동안 당국을 중심으로
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작업해 온
결과들을 토대로
향후 인프라 구축방안과 제도개선에 대한
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.

반려동물보험이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
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보호 장치로서
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
오늘 세미나에서 건설적 대안들이 토론되었으면 합니다.

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어
세미나의 토론 좌장을 맡아 주실 **박소정 교수님**(서울대),
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실 **전문가**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